



[현대차 美 경영진 인터뷰] 북미시장 도전 가속화 비결 듣다 03



Economy

코스피	2206.39 (0.00)	코스닥	673.03 (0.00)
금리 (미국 3년)	1.43 (+0.01)	환율 (원/달러)	1161.30 (+2.20) (10일)

Q 르포 | 국내 최초 무인 자동화 '이마트 청계천점' 가보니

온라인 주문제품, 매장에서 로봇 통해 픽업

세계 첫 감사인 지정제 회계법인 역대급 교체

(220개 상장사)

회계감사 시각변동

(上)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국내 주요대기업 외부감사인 교체 삼성, 40년 만에 삼일→안진 지정 안진, 전담팀 구성 등 감사에 사활

당국, 기업-감사인 충돌대비 만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수십 년 만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교체하면서 회계감사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장사 입장에서 새로운 감사인의 '간간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감사인은 이전 감사인의 회계처리 관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만큼 기업과 감사인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회계 감독당국은 이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앞서 감사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에 회계법인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책임감도 크다.

특히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감사하게 된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에서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회사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감사가 잘못되면 안진이 아닌 글로벌 파트너사인 딜로이트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최고의 인력이 상당히 꼼꼼하게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안진, 만반의 준비

올해부터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220개 기업의 감사인이 바뀌었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

(주요기업의 감사인 지정현황)

기업	감사인 지정 현황
삼성전자	삼일→안진
SK하이닉스	삼정→삼일
신한지주	삼정→삼일
KB금융	삼일→삼정
삼성생명	삼일→삼정
카카오	삼일→삼정
엔씨소프트	삼정→삼덕
삼성전기	한영→삼일
에스오일	삼일→삼정
롯데케미칼	한영→삼일
미래에셋대우	삼정→삼일
CJ제일제당	삼일→한영

/금융감독원

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인과 기업 간의 유착을 없애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갑과 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지정감사는 우선 자산 규모 1826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대상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J, 신한·KB금융그룹, 삼성생명 등이 포함됐다.

시장의 이목이 쏠린 곳은 40년 만에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삼성전자다.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온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안진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는다.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법인 감사인 역시 PwC에서 안진의 글로벌파트너사인 딜로이트로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안진이 삼성전자 감사인이 된 것 자체가 '독이 든 성배'라고 말한다.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삼일(1801명)의 절반인 835명에 불과하고, 삼일이 40년간 만들어온 회계인 만큼 소위 관행이라 불리는 '그들만의 약속'이 있을 수 있어서다. 안진은 그런 '약속'들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딜로이트안진 여의도 본사.



EY한영 회계법인 여의도 본사. /손진영 기자

SSG닷컴, '픽셀' 서비스 시작 배송방식 중 청계천점 픽업 신설

이마트 청계천점이 국내 최초로 SSG닷컴의 주문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크레인 로봇이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로봇 픽업 서비스를 선보여 온·오프라인 통합 하이테크 매장으로 변신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도와주는 직원은 상주하지만, 전체 픽업 과정은 무인으로 자동화돼 운영된다.

청계천점 지하1층에 자리잡은 '미니로드'로 불리는 물류 자동화 설비 시스템은 원래 이마트 물류센터를 비롯해 많은 물류 매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주문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았다. 그러나 마트 안에 크레인 로봇이 설치돼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는 설명이다.

SSG닷컴은 이마트 청계천점 공간을 임대해 10일 SSG닷컴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키오스크에서 고객이 직접 픽업할 수 있는 '픽셀(PIXEL)'



'픽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 자리잡은 이마트 청계천점 지하 1층의 매장 위로 제품이 배달되는 컨베이어벨트가 보인다. SSG닷컴 인기 상품을 파는 지하 1층 코너는 무인계산대로만 운영된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키오스크의 기술적인 부분은 계열사인 신세계아이앤씨가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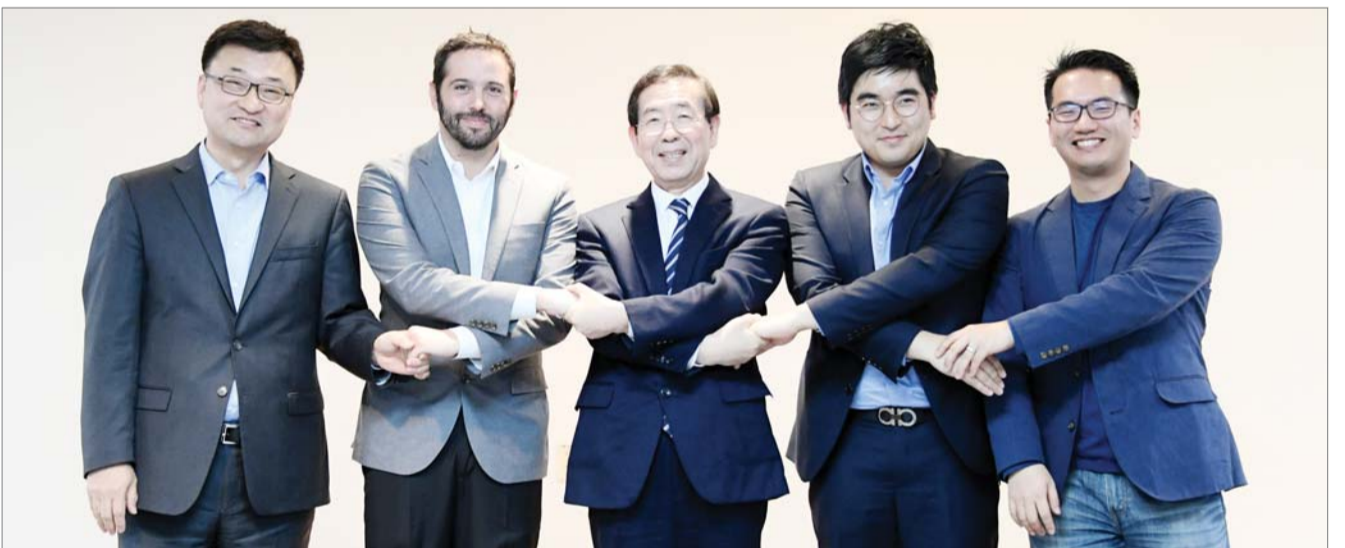
'PIXEL'은 'PICK-CELL'의 줄임말로, 온라인 주문한 물건을 지정된 셀(바스켓을 놓는 곳)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픽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로 이마트 청계천점은 '하이브리드 스마트 O2O(온·오프라인 연계)' 매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SSG닷컴에는 최근 '픽셀'이라는 카

테고리가 생겨났으며, 10일부터 배송 방식 중 '청계천점 픽업'이 신설됐다. 청계천점 측 배송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중 원하는 시간을 정해 배송받을 수 있다.

11일 이 매장의 키오스크에 방문하니 주문 바코드를 인식하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바코드를 스캔하자 로봇 크레인이 바코드 정보로 위치를 파악해 셀에 있는 바스켓을 가져왔다. (4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서울시, 美 신성장 기업 대서울 투자 맞손

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에서 미국 현지의 신성장 유망기업 4개사와 총 2억3000만 불(한화 약 27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서울로 유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L7면)

/연합뉴스

일상에 들어온 AI·모빌리티 삼성·LG '두각'



삼성·LG 등 AI 기술 대거 선보여 IT·모빌리티 기업간 경계 허물어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0'이 막을 내렸다. CES는 전 세계의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 5면)

올해에는 인공지능(AI), 5G,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등을 큰 주제로 4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제품 영상을 찍으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부터 꼼꼼히 메모하는 사람까지 전시장 곳곳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제품을 보기 위해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일상에 들어온 AI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AI는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됐다.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과 로봇이 이르기까지 AI가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찾기 어려웠다. 가정에서 AI를 통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홈을 구현한 업체들도 눈에 띄었다.

전시 내내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기술

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공 모양의 지능형 컴패니언 로봇인 '블리'를 기조연설을 통해 첫 공개했다. "하이 블리"라고 부르면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해 가까이 간다. 또한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TV, 청소기 등과 연동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5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은 2020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한 단계 진화한 '푸드 AI'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8K TV에도 AI 기술을 적용했다.

LG전자는 대규모의 LG 씽큐존을 구성해 인공지능 선도 이미지를 부각했다. (4면에 계속)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